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김현미(Hyun Mi Kim)¹⁾

도현심(Hyun-Sim Doh)²⁾

ABSTRACT

In this study, a sample of 249 mothers of 5- to 7-year-old kindergarteners responded to 4 questionnaires regarding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eachers of the children also rated social competence. Correlations and regressions showed that parenting stress and difficulties in parenting were negatively related and parenting confidence and behavior were positively related to social competence, respectively. Parenting stress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to explain social competence. Maternal parenting stress was negatively related to parenting behavior and confidence, and it was positively related to difficulties in parenting. Parenting confidence was positively related and difficulties in parenting were negatively related to the subscales of parenting behavior, respectively. Parenting efficacy tended to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Key Words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maternal parenting stress),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

I. 서론

아동은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환경을

접하면서 사회를 배우게 되며, 점차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특히 아동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사회와 그 구성원이

¹⁾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²⁾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E-mail : goodparents@hanmail.net

요구하는 태도와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또래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에 적응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한 사회적 능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능력은 미래 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기본적인 능력으로 강조되고 있다.

아동이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표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은 인지적·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고, 현재뿐 아니라 훗날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Hartup, 1983). 특히, 유아기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사회적으로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능력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형성한 또래관계는 청소년기의 적응을 예측한다고 보고된다(Asher, Oden, & Gottman, 1977). 따라서 이 시기의 사회적 적응은 아동의 긍정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현재의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문제와도 관련이 있어(Maccoby & Martin, 1983; Pettit, Dodge & Brown, 1988), 유아기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는 사회적 능력을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행동의 적응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을 보면 부모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한민경, 2002; Lieberman, 1977; MacDonald & Parke, 1984). 국외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적절히 통제하고 합리적일 때, 아동은 높은 사회적 능

력을 가지고 있었다(Cohn, 1990; Putallaz, 1987). 반면에, 어머니의 거부적이고 강압적이며,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Lieberman, 1977). 국내연구들(권운정, 1999; 김영미, 2001)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들이 발견된다.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행동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이며 적절한 규제를 하고 애정적일 때 아동은 높은 사회적 능력을 나타내며, 거부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태도와 과잉보호는 아동의 부적응이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원유미, 2000; 최정미, 1999; Dekovic & Janssens, 1992).

어머니의 양육행동 이외에도, 양육행동을 선행하는 변인으로 부모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문혜련, 1999; Abidin, 1992). 실제로 국내외의 연구들은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발달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문혜련, 1999; Crnic & Greenberg, 1990; Snyder, 1991). 또한,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유우영, 1998; 이정희, 2000)과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예측해주는 변인이지만,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관련시켜 살펴본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부모 변인들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인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최근 들어 보고되고 있다(문태형, 2002; Coleman & Karrake, 1998; Teti & Gelfand, 1991). 즉,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방해하였다(Coleman & Karraker, 1998). 이와 같이 양육효능감은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부모의 자아 형성뿐만 아니라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인지 능력 등,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은 사회적 능력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문태형, 2002; 문혜련, 1999; Abidin, 1992).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이 변인들간의 단편적인 상관관계만을 살펴왔기에, 이러한 부모관련변인들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그리고 양육행동 등의 각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비롯하여, 이러한 세 가지 부모관련 변인들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선행변인들로서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각 변인들간의 관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부적절한 양육을 하는 경향이 있었

다(Abidin, 1990; Belsky, 1984). 국내의 경우에도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자녀에 대해 강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들(신숙재, 1997; 안지영, 2001)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의해 겪는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Abidin, 1990; Dumka, Stoerzinger, Jackson, & Roosa, 1996). 이러한 결과는 몇 편 안되는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서,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예측해주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은 낮은 수준이었다(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최형성, 2001). 부모의 자녀 양육능력으로 볼 수 있는 양육효능감은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한 측면으로,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좀더 반응적이고 적절한 감독을 하는 등 유능한 양육행동을 나타내었다(Dorsey et al., 1999). 국내연구의 경우, 부모가 자신의 역할 수행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었다. 즉, 자신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였다(문혁준, 1999; 우희정, 199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그리고 양육행동 간에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각 변인들간의 상호 관련성과, 앞서 언급한 기존의 국외연구결과들(Abidin, 1990; Belsky, 1984)에 기초할 때,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육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편, 부모관련 변인들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대부분이 성 구별 없이 전반적인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러나 몇몇 연구결과에서 양자간의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다(한민경, 2002; Boyum & Parke, 1995). 예를 들면, Boyum와 Parke(1995)의 연구에서 어머니가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적게 표현할수록 남아는 인기가 있었으나, 여아의 경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남녀 아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어머니에 의한 평가만을 이용하였으나(문태형, 2002; Connolly & Doyle, 1981), 몇몇 연구결과에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보고와 교사보고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김정아, 1990; 송인우,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보고와 교사보고 모두를 사용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와, 이러한 부모관련 변인들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비롯하여,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이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3.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3.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3.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3.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강북 지역의 3개구에 위치한 4개의 유치원과 1개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249명의 5-7세 아동들(남아 : 115명, 여아 : 134명)로서, 그들의 어머니들과 16명의 교사들이 응답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에 형성된 또래관계는 아동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및 적응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Hartup, 1983)에 근거하여, 유아기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시기의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척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 척도로 구성된다. 어머니 관련 척도는 어머니 자신에 의해, 아동의 사회적 능력 척도는 어머니와 교사에 의해 각각 평가되었다.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83)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 (PSI)'를 축소, 개정한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Abidin, 1990)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고통,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그리고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등의 세 가지 하위요인들을 포함하여, 각 요인별로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고통은 어머니가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부모 개인의 고통을,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그리고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아동의 기질로 인해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의 요인을 명료하게 구분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부모의 고통 요인 9문항,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요인 10문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요인 12문항 등 총 31문항으로 구분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부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평가하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 계수를 살

펴보면, 부모의 고통은 .81,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86, 그리고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88이었다.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Floyd, Gilliom, 그리고 Costigan(1998)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안지영(2000)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학령기 자녀용으로 개발된 것을 안지영(2000)이 우리나라 문화에 적용 가능한 문항을 고려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양육 자신감 요인(이하,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7문항)과 부모역할에서 아이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양육 어려움 요인(이하,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8문항) 등 2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에서 1문항이 제외되어 최종 문항 수는 총 14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3점, 그리고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평가되는 Likert식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에 의한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73,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77이었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Crase, Clark, 그리고 Pease(1978)가 개발한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 Mother form(IPBI : Mother form)을 김정아(1990)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적극적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 반응성, 합리적 지도, 친밀성 등의 5개 하위요인을 포함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40 이하인 반응성 요인 1문항을 제외하고, 신뢰도가 낮은 친밀성 요인(6문항)을 제외하여, 본 분석에 사용된 하위요인은 적극적 참여(4문항), 일관성 있는 규제(5문항), 반응성(4문항), 합리적 지도(8문항) 등 4가지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 식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1점,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다' 2점, '반반이다' 3점, '그렇게 하는 편이다' 4점, '항상 그렇게 한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양육행동 특성이 많이 나타난다. 즉, 각 하위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s α 를 살펴본 결과, 적극적 참여 요인은 .66, 일관성 있는 규제 요인은 .59, 반응성 요인은 .71, 합리적 지도 요인은 .84로 나타났다.

4)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oh와 Falbo(1999)가 개발한 '사회적 능력 척도 : 유치원용'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적응성 11문항, 인기도/지도력 8문항, 사회적 참여 5문항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어머니용과 교사용 척도 내용은 동일하였다. 대인적응성은 사회적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협력적이고 잘 지낼 수 있는 행동특성을, 인기도/지도력은 자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으며 다른 친구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행동특성을, 사회적 참여는 혼자 있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행동특성을 의미한다. 요인분석 결과, 한 문항이 어머니용 척도와 교사용 척도에서 서로 다른 요인에 포함되었다. 어머니보고에서는 사회적 참여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던 문항("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이 교사보고에서는 인기도/지도력의

요인에 포함되었다. 또한 요인부하량이 .40 이하인 1문항("친구를 잘 도와준다")이 양 척도 모두에서 제외되었다. 어머니용 척도의 경우 대인적응성은 10문항, 인기도/지도력은 8문항, 사회적 참여는 5문항으로 총 23문항, 교사용 척도의 경우, 대인적응성은 10문항, 인기도/지도력은 9문항, 사회적 참여는 4문항으로 총 23문항이 포함되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3점, 그리고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평가되는 Likert식 4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s α 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평가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79~.87이었고, 교사가 평가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86~.93으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04년 2월 9일~25일에 서울시 강북에 위치한 4개의 유치원과 1개의 어린이집에서 수집되었다. 배부된 총 340부의 질문지 가운데 어머니용 질문지는 251부(74%), 교사용 질문지는 300부(88%)가 회수되었으며, 어머니용 질문지와 교사용 질문지가 모두 회수된 경우는 251부이었다. 그 중 양육스트레스 문항 전체에 답하지 않은 경우(1부)와 양육행동 문항 전체에 답하지 않은 경우(1부)를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249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측정도구는 요인 구성을 파악하고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하위요인을 결정하였으며, 측

정도구의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그리고 양육행동간의 관계와, 이러한 변인들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사회적 능력에 대한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가 보고한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

남아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고통,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및 아

동의 까다로운 기질 등 각각의 변인들은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인 대인적응성($r=-.24 \sim -.65, p<.001 \sim .01$) 및 인기도/지도력($r=-.20 \sim -.52, p<.001 \sim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고통에 의한 스트레스가 클수록,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그리고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대인적응성과 인기도/지도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들 중 하나인 사회적 참여와의 관계에서는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경우만 부적 상관($r=-.22, p<.05$)을 보였다.

여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은 대인적응성($r=-.23 \sim -.59, p<.001 \sim .01$) 및 인기도/지도력($r=-.19 \sim -.47, p<.001 \sim .01$)과의 관계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아동의 사회적 참여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표 1>).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교사가 보고한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

남아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고통,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및 아

<표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관계

보고자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능력(남/여)		
		대인적응성	인기도/지도력	사회적 참여
어머니	부모의 고통	-.24**/-.23**	-.20*/-.22*	-.02/-.04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37***/-.49***	-.52***/-.47***	-.22*/-.29***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65***/-.59***	-.31***/-.19*	-.17/-.11
교사	부모의 고통	-.19*/-.08	-.23*/-.07	-.14/-.02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20*/-.11	-.40***/-.23**	-.19*/-.06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42***/-.28***	-.33***/-.10	-.22*/-.02

주 : 남아 115명, 여아 134명임.

* $p<.05$ ** $p<.01$ *** $p<.001$.

〈표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관계

보고자	양육효능감	사회적 능력(남/여)		
		대인적응성	인기도/지도력	사회적 참여
어머니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24*/.36***	.42***/.47***	.13/.11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	-.40***/-.34***	-.21*/-.23**	-.05/-.20*
교사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14/.12	.28***/.08	.24**/-.08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	-.15/-.14	-.19*/-.14	-.08/-.11

주 : 남아 115명, 여아 134명임.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각각은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인 대인적응성($r = -.19 \sim -.42, p < .001 \sim .01$) 및 인기도/지도력($r = -.23 \sim -.40, p < .001 \sim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겪는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클수록,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의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그리고 아동이 까다로운 기질에 의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대인적응성과 인기도/지도력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및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아동의 사회적 참여와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r = -.19, p < .05, r = -.22, p < .05$).

여아의 경우,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대인적응성과($r = -.28, p < .001$),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인기도/지도력($r = -.23, p < .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1>).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

남아의 경우,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대인적응성($r = .24, p < .05$) 및 인기도/지도력($r = .42, p < .001$)과의 관계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남아의 대인적응성과 인기도/지도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대인적응성($r = -.40, p < .001$) 및 인기도/지도력($r = -.21, p < .05$)과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여아의 경우,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대인적응성($r = .36, p < .001$) 및 인기도/지도력($r = .47, p < .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여아의 사회적 능력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부적 관계($r = -.20 \sim -.34, p < .001 \sim .05$)를 나타냈다(<표 2>).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교사가 보고한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

남아의 경우,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인기도/지도력($r = .28, p < .01$) 및 사회적 참여($r = .24, p < .01$)와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여,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교사가 평가한 남아의 인기도/지도력과 사회적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인기도/지도력과 관계에서 부적($r = -.19, p < .05$)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반면, 여아의 경우는 양육효능감과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가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표 2>).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머니가 보고한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

남아의 경우,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인 어머니의 적극적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 및 합리적 지도는 인기도/지도력($r=.22 \sim .42, p<.001 \sim .01$)과,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는 아동의 사회적 참여와 유의한 정적 관계($r=.26, p<.01$)를 보였다. 즉,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관성 있는 규제를 하며, 합리적으로 지도할수록 남아의 인기도/지도력이 높았으며, 어머니가 합리적으로 지도할수록 남아의 사회적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적극적 참여와 합리적 지도는 대인적응성과 정적 관계($r=.17 \sim .34, p<.001 \sim .05$)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적극적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 그리고 합리적 지도는 여아의 인기도/지도력과의 관계에서 정적인 관계($r=.26 \sim .43, p<.001 \sim .01$)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적극적 참여와 반응성은 여아의 사회적 참여와 정적 관계($r=.22 \sim .26, p<.01 \sim .05$)를 보여, 자녀

양육에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수록 여아의 사회적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표 3>).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교사가 보고한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일관성 있는 규제 및 합리적 지도는 인기도/지도력($r=.20 \sim .33, p<.001 \sim .05$) 및 사회적 참여($r=.19 \sim .28, p<.01 \sim .05$)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어머니가 일관성이 있는 규제를 하고 합리적으로 지도할수록 남아의 인기도/지도력과 사회적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적극적 참여만이 여아의 대인 적응성과 정적 관계($r=.17, p<.05$)를 보였다. 즉,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여아의 대인 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이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표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관계

보고자	양육행동	사회적 능력(남/여)		
		대인적응성	인기도/지도력	사회적 참여
어머니	적극적 참여	.16/.34***	.23*/.26**	.03/.22*
	일관성 있는 규제	.16/.12	.22*/.33***	.05/.23
	반응성	-.08/.15	.12/.08	.00/.26**
	합리적 지도	.04/.17*	.42***/.43***	.26**/.11
교사	적극적 참여	.00/.17*	.09/.02	.20/-.11
	일관성 있는 규제	.09/.11	.33***/.14	.28**/.03
	반응성	-.17/.06	-.15/.03	-.15/-.03
	합리적 지도	.07/.16	.20*/.13	.19*/-.01

주 : 남아 115명, 여아 134명임.

* $p<.05$ ** $p<.01$ *** $p<.001$.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이 어머니가 보고한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이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대인적응성은 세 가지 변인들 가운데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65, p < .001$), 그 설명력은 42%였다. 남아의 인기도/지도력에 대한 어머니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beta = -.36, p < .001$),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beta = .21, p < .05$), 합리적 지도($\beta = .20, p < .05$)의 순이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변인들의 설명력은 36%이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참여는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beta = .26, p < .01$)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6%였다.

여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beta = -.32, p < .001$)과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beta = -.21, p < .01$)만이 아동의 대인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은 37%였다. 여아의 인기도/지도력에 대한 어머니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beta = -.45, p < .001$),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beta = .28, p < .01$), 합리적 지도($\beta = .27, p < .001$),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beta = .24, p < .01$), 그리고 반응성($\beta = -.15, p < .05$)의 순이었다. 이러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아의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beta = -.24, p < .01$)과 어머니의 반응성($\beta = .21, p < .05$)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12%에 해당하였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이 교사가 보고한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남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인적응성은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42, p < .001$), 그 설명력은 17%였다. 아동의 인기도/지도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beta = -.35, p < .001$), 어머니의 일관성 있는 규제($\beta = .23, p < .01$), 반응성($\beta = -.19, p < .05$)의 순서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세 가지 변인들의 설명력은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참여는 일관성 있는 규제($\beta = .28, p < .01$),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beta = -.18, p < .05$)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 설명력은 11%였다.

여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 중에서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만이 아동의 대인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28, p < .001$), 이 변인의 설명력은 8%였다. 아동의 인기도/지도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에서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23, p < .001$), 그 설명력은 5%였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간의 관계

1)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

남녀 아동 모두 부모의 고통 및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적극적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 및 합리적 지도와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남 : $r = -.24 \sim -.40, p < .001 \sim .05$, 여 : $r = -.18 \sim -.41, p < .001 \sim .05$). 즉, 어머니가 부모역할을 하는 데 고통을 많이 느끼고,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스

〈표 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

양 육 스트 레 스	양 육 행 동(남/여)			
	적극적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	반응성	합리적 지도
부모의 고통	-.28**/-.25***	-.24*/-.18*	-.03/.09	-.27**/-.31***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33***/-.41***	-.30***/-.24**	-.10/-.21*	-.40***/-.23**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11/-.33***	-.16/-.08	-.10/-.03	-.16/-.15

주 : 남아 115명, 여아 134명임.
* $p < .05$ ** $p < .01$ *** $p < .001$

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적극적 참여를 적게 하고, 일관성 있는 규제를 하지 못하며, 합리적 지도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어머니의 일관성 있는 규제, 반응성 및 합리적 지도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발견되었다.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와 적극적 참여간의 관계($r = -.33, p < .001$)와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반응성간의 관계($r = -.21, p < .05$)에서, 여아의 경우에만 양자간에 유의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표 4>).

2)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간의 관계

남녀 아동 모든 경우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요인인 부모의 고통,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및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모두는 부

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는 유의한 부적인 관계(남 : $r = -.35 \sim -.41, p < .001$, 여 : $r = -.36 \sim -.46, p < .001$)를,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과는 정적인 관계(남 : $r = .40 \sim .44, p < .001$, 여 : $r = .36 \sim .48, p < .001$)를 보였다. 즉, 어머니가 부모역할에 대해 고통을 지각할수록,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반면,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5>).

3)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간의 관계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반응성을 제외하고 남녀 아동이 대체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남 : $r = .28 \sim .39, p < .001 \sim .01$, 여 : $r = .40 \sim .47, p < .001$). 즉, 어머니가 부모역할을 하는 데 자신감을 가질수록, 아동을 양육하는 데 적극적으로

〈표 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간의 상관관계

양 육 스트 레 스	양 육 효 능 감(남/여)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
부모의 고통	-.35***/-.36***	.40***/.36***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38***/-.46***	.43***/.47***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41***/-.43***	.44***/.48***

주 : 남아 115명, 여아 134명임.
*** $p < .001$.

〈표 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

양 육 효 능 감	양 육 행 동(남/여)			
	적극적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	반응성	합리적 지도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39***/.43***	.28**/.40***	.01/.26**	.33***/.47***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	-.22*/-.31***	-.30***/-.12	-.00/-.13	-.20*/-.18*

주 : 남아 115명, 여아 134명임.

* $p < .05$ ** $p < .01$ *** $p < .001$.

참여하고, 일관성 있는 규제를 하며, 합리적 지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어머니의 일관성 있는 규제와 반응성을 제외하고 남녀 아동 모두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남 : $r = -.20 \sim -.22, p < .05$, 여 : $r = -.18 \sim -.31, p < .001 \sim .05$).

한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간의 관계는 성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반응성간의 관계에서, 여아의 경우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r = .26, p < .01$). 반면,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과 어머니의 일관성 있는 규제간의 관계에서는 남아의 경우만 유의한 상관($r = -.30, p < .001$)을 보였다(<표 6>).

4)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앞서 제시한 <표 4>, <표 5>, <표 6>에서, 각 변인들간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변인들을 이용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의 회귀분석모델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1)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의 매개적 역할

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하위변인인 적극적 참여간의 관계에서 부모역할

에 대한 자신감의 매개적 역할

남아의 경우, 종속변인인 어머니의 적극적 참여에 미치는 부모의 고통($\beta = -.28, p < .01$)의 유의한 영향력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부모의 고통과 적극적 참여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였으며, 그 설명력은 17%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의 경우에도 유사하였다. 즉, 어머니의 적극적 참여에 미치는 부모의 고통($\beta = -.25, p < .01$)의 유의한 영향력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더 이상 유의적이지 않음으로써,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부모의 고통과 어머니의 적극적 참여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의 설명력).

②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하위변인인 일관성 있는 규제간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의 매개적 역할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일관성 있는 규제에 미치는 부모의 고통($\beta = -.24, p < .05$)의 유의한 영향력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부모의 고통과 일관성 있는 규제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였으며, 그 설명력은 10%이었다.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일관성 있는 규제에 미치는 부모의 고통($\beta=-.18, p<.05$)과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beta=-.24, p<.01$)의 영향력은 부모의 고통과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각각을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동시에 투입한 결과, 모두 매개적 역할을 하였으며, 각각의 설명력은 13%과 14%이었다.

③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하위변인인 반응성간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의 매개적 역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하위변인인 반응성간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여아의 경우에만 매개적 역할을 나타내었다. 즉, 여아의 경우, 종속변인인 어머니의 반응성에 미치는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beta=-.21, p<.01$)의 영향력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더 이상 유의적이지 아니었다. 즉,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어머니의 반응성 간에 매개적 역할을 하였으며, 8%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④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하위변인인 합리적 지도간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의 매개적 역할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에 미치는 부모의 고통($\beta=-.29, p<.001$)의 유의한 영향력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부모의 고통과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간에 매개적 역할을 하였으며, 13%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여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에 미치는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beta=-$

$.23, p<.01$)의 유의한 영향력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는 더 이상 유의적이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의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에 대한 설명력은 22%이었다.

(2)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의 매개적 역할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서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우선 남아의 경우에 종속변인인 어머니의 일관성 있는 규제에 미치는 부모의 고통($\beta=-.24, p<.001$)의 유의한 영향력은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더 이상 유의적이지 아니었다. 즉,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부모의 고통과 어머니의 일관성 있는 규제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였으며, 그 설명력은 11%이었다.

여아의 경우,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부모의 고통과 어머니의 적극적 참여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12%의 설명력).

IV. 논 의

본 연구는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나아가 부모관련 변인들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고,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녀 아동 모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낮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의 아동들이 높은 집단의 아동들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김혜진, 2003; 문혜련, 1999)과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부적응이 높아지고, 공격성, 불안 및 과잉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연구결과(이정희, 2000)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밀접한 관계는 뒤에 언급될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간의 관계와 관련시켜 살펴볼 때 더욱 더 설명력이 있을 것이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육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양육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와는 달리,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는 남아의 경우는 어머니 보고와 유사하게 대부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여아의 경우는 단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 보고와 교사 보고

간의 이러한 차이는 뒤에서 언급될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교사 보고의 경우 대부분 어머니 관련 변인과 여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결과가 거의 발견되지 않은 것은 조사 대상 교사들이 남아와 달리 여아의 사회적 능력에 편차를 두지 않고 유사하게 평가하였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가정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남녀 아동 모두의 대인적응성 및 인기도/지도력과 각각 정적 관계와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 아동의 사회적 참여와의 관계는 여아의 경우에만 양자간에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양육스트레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육효능감과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는 남아의 경우에만 몇몇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여아의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니 보고에서 발견된 결과는 높은 양육효능감을 지닌 부모는 자녀의 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문태형, 2002; Dorsey et al., 1999)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녀양육에 대해 어머니가 지각하는 인지적 측면이 아동의 적응과 관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고양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에게 일관성 있는 규제를 하며 자녀를 합리적으로 지도할수록 남아 아동의 인기도/지도력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를 취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보다 잘 적응하며, 과잉 보호적이고 거부적 태도를 취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들(Cohn, 1990; Dekovic & Janssens, 1992)과 일치한다. 한편, 대인적응성과 사회적 참여의 경우에는 다소의 성차가 발견되어, 어머니의 적극적 참여 및 합리적 지도와 아동의 대인적응성간의 관계와, 어머니의 적극적 참여 및 반응성과 사회적 참여간의 관계는 여아의 경우에만 정적 관계를 보였다. 반면, 합리적 지도와 사회적 참여간의 관계는 남아의 경우에만 정적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전반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일부 하위 영역에서 아동의 성에 따라 유의한 관계를 보인 연구결과(한민경, 2002)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관성 있는 규제를 하며, 합리적으로 지도할수록 아동의 또래관계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는 부모-자녀간의 바람직한 관계와 또래관계 및 대인간의 적응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긍정적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에서도 보고자에 따라 차이를 보여, 각각의 변인들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에서 교사보고에 비해 어머

니보고의 경우가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관련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모두 어머니라는 동일한 평가자로 인해 양자간의 상관관계가 보다 과장되기 쉬운 점에 기인할 수도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보고자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나긴 하였으나, 어머니의 낮은 스트레스, 높은 양육효능감 그리고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높은 사회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등의 세 가지 어머니 관련 변인들 가운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대체적으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같은 양육스트레스 요인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적응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 가운데 양육스트레스원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한 연구결과들(유우영, 1998; Cmic & Greenberg, 1990)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서 나타난 다소의 성차는 아동의 성에 따른 양육행동이 다르며 이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김정아, 1990)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섯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정적인 양육을 많이 하게 된다는 선행 연구결과들(신숙재, 1997; Cmic & Greenberg, 1990)과 일치한다. 한편,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과 적극적 참여간의 관계와,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반응성간의 관계에서 여아의 경우에서만 부적인 관계를 보여 성차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즉 아들을 둔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강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딸을 둔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보다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신숙재, 1997)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아동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양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성역할 사회화와 관련시켜 설명하면 아동의 성에 따라 아동의 행동에 대한 기대 수준이 달라 남아의 활동성 수준에는 수용적이나 여아의 활동성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규제나 처벌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아의 까다로운 행동이나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기대에 일치하지 않았을 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인식하게 되고 이는 자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높을 때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녀 아동 모두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 모두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아진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신숙재, 1997; 안지영, 2001)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자신의 양육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기 쉽고, 이러한 상황은 나아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발달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의 인지적 측면에 영향을 주며 이것은 더 나아가 아동의 발달과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보다 실증적인 후속 연구들이 요구된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간의 관계가 성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안지영, 2001)를 지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재로서는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딸보다는 아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결과들(신숙재, 1997; 천희영, 1992)을 통해 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리라 예상되므로, 성차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적극적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 반응성 및 합리적 지도 등의 양육행동 요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부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 한 요인인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신의 부모역할 수행을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양육행동이 달라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었다는 연구결과(문혁준, 1999)와 일치하였다. 또한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판단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최형성, 2001; Dumka, Stoerzinger, Jackson, & Roosa, 1996)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자신이 지각하는 인지적 측면에서 양육효능감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부모-자녀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양육하는 데 자신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이 아동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쉽다는 점에서 볼 때,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어머니의 반응성간의 관계에서 여아의 경우만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과 어머니의 일관성 있는 규제간의 관계에서는 또한 남아의 경우에만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낮을수록 어머니는 아들을 보다 강압적으로 대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신숙재, 1997)와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과 같은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은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요인들 가운데 특히 부모의 고통 및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관계와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들간의 관계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에서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 대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발견된 점과 관련시켜 볼 때 매우 흥미롭다. 즉,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는 그 자체로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반면에,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부모의 고통이나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서의 영향력보다는 양육효능감을 통해 양육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나아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자체로 인해 부모가 겪는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강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와 관련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살펴보는 데 있어, 취학전 아동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여 어머니와 관련된 양육관련 변인들만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를 통해 전반적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증가하면서 아버지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어머니와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았으나,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자신의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와 관련된 변인들과 함께 아동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들을 포함시켜 살펴보는 보다 통합적인 시각의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취학전 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관련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다소의 무리가 따른다. 사회적 능력이 한 시점에 발달하여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더불어 계속해서 변화하며, 연령에 따라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스트레스가 달라지고 이에 따른 부모의 행동도 변화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비교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관련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국외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는데, 특히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우리 문화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이용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의 선행변인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등 어머니의 인지적 측면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각각의 변인들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봄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부모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각 요인들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서 다소의 성차를 발견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어머니 보고에 의해서만 측정되었던 제한점을 보완하여 어머니보고와 교사보고를 모두 사용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좀더 객관적인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권윤정(1999).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미(2001).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광주 시내 어린이집 아동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진(200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태형(2002). 어머니의 사고 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49-63.
- 문혜련(1999).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인우(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어머니 평가와 교사 평가 차이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원유미(2000). 부모의 양육태도, 결혼만족도, 의사결정유형과 자녀특성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우희정(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우영(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어머니 양육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희(2000). 어머니가 인지한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유아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정미(1999).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의 인과모형 분석-어머니의 성인지 애착, 결혼적응, 애정적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천희영(1993).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4(2), 17-34.
- 최형성(2001).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민경(2002).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이해 능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bidin, R. R.(1983).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Charlottesville, VA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 Charlottesville, VA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 407-412.
- Asher, S. R., Oden, S. L., & Gottman, J. M.(1977). Children's friendships in school setting. In current top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Vol. 1)(pp. 33-62), ed. by L. G. Kats. Norwood, N. J. Ablex.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approach. *Child Development*, 55, 85-96.
- Boyum, L. A., & Parke, R. D.(1995). The role of family expressivenes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593-608.
- Cohn, D. A.(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s-old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nnolly, J., & Doyle, A. B.(1981).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454-462.
- Cruse, S. J., Clark, S. G., & Pease, D.(1978).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anual*.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 Crne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Dekovic, M., & Janssens, J. M.(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25-932.
- Doh, H. S., & Falbo, T.(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1), 149-162.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Dumka, L. E., Sta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Floyd, F., Gilliom, L. A., & Costigan, C. L.(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9(5), 1461-1479.
- Hartup, W. W.(1983). Peer relations. I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Vol. 4)*(pp. 103-196), ed. by E. M. Hetherington and Mussen, P. H. New York : Wiley.
- Ladd, G. W., & Golter, B. S.(1988). Parents' management of preschooler's peer relation : Is it related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09-117.
- Lieberman, A. F.(1977). Preschoolers' competence with a peer : Relations with attachment and peer

-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48, 1277-1287.
- Maccoby, E. E., & Martin, J. A.(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Vol. 4) :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p. 1-101)*, New York : Wiley.
- Macdonald, K., & Parke, R. D.(1984). Bridging the gap :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Pettit, G. S., Dodge, K. A., & Brown, M. M.(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Putallaz, M.(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 324-340.
- Synder, J.(1991). Discipline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maternal stress and mood on child conduct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 263-276.
- Teti, O.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2004년 8월 31일 투고 : 2004년 10월 30일 채택